현안 분석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과 금융산업 재편 전망

시행 내용과 배경

- 주요 내용
  - 2001년부터 금융기관이 파산·영업 정지 등에 직면할 경우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1] 원리금의 지급이 보장됨
  - 이자는 약정 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현재 약 6.83%)중 가장 낮은 수치로 산정됨
  -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결제성 자금으로서 이자 지급이 없는 예금은 2003년말까지 전액 보호됨

- 시행 배경
  - 예금 전액 보장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수신고 확대를 지향하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
  - 예금 보장 한도의 확대 배경으로서는 1) 대규모의 대기성 부동 자금이 존재하며, 2) 금고·신협의 퇴출 압력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고, 3) 금융 불안이 상존한 상태에서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이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 등이 있음

의미와 평가

- 의미
  - 예금보험제도의 본격 가동을 통해 IMF 위기이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 대신에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구조조정이 주종을 이루게 됨
  - 시가평가제와 함께 예금 부분 보장제의 실시는 예금자나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착시켜 갈 것이며,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요소로서 고객 서비스가 중요해짐
  - 부분보장제의 실시에 앞서 금년말까지 금융 구조조정 마무리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가 전제 조건으로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 1인당 GDP의 5배 수준

- 평가

· 부분보장제의 시행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가 촉발될 수 있음

· 반면,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보장한도 확대로 보험료율 인상 요인이 적지 않아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금고-신협 등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미진해질 우려가 있음

· 차등 요율 적용에 의한 우량-불량 금융기관의 선별 기능이 없음에 따라,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여전히 있음

< 예금 부분보장제 시행의 긍정-부정 측면 >

	항 목	예상 파급 경로
긍정 측면	구조조정 원활화	퇴출시 예금의 일부만 지급 보장(pay-off 방식)→ 공적 자금 투입 부담 경감→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원활화
	금융시스템의 견실화	예금자 중시의 경영 촉발 및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 강화 유인→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 유도→ 금융시스템의 견실화
부정 측면 (보장확대 영향)	금융기관의 수익성 약화 요인	보장한도 확대에 따른 預保기금 부담 적자 악화→ 예금보험료율 인상 압력→ 금융기관의 부담 가중→ 수익성 약화 요인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연	자금 유출 압력 완화(불량 금융기관)→ 퇴출 압력 약화→ 구조조정 미흡 우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금융권의 예상 자금이동

· 부분 보장제 도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예금의 예상 규모는 비우량 은행의 개인·법인 예금 12조원과 제2 금융권의 수신고 8조원 정도를 합쳐 약 20조 원 정도이며, 안전한 우량 은행 및 외국계 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개인 예금, 종금사 및 금고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제2 금융권의 자금이 우량 은행과 외국계 은행권에 유입될 전망

· 은행권은 외국계 은행으로의 자금집중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외국계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비우량 은행들의 시장점유율 축소 및 수익성 저하의 가능성이 있음

· 증권-보험권의 경우,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증권)와 보장성 보험 상품 특성(보험) 등에 따라 타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출보다는 업종내 이동이 예상됨

· 종금사의 경우 2차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실화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자금 유출 가능성이 상존함

< 금융권별의 예금 규모별 비중(%, 금액 기준) >

	은행(개인)	은행(법인)	종금	금고	신협
5,000만원 이하	66.3	2.2	3.5	52.8	92.6
5,000만원 초과	33.7	97.8	96.5	47.2	7.4

주: 은행 예금은 10개은행의 표본조사 결과
자료: 재정경제부

- 각종 금융 현안에 미칠 예상 영향

· 예금 부분 보장제가 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은 금융 시스템의 회복 時에 크지 않을 것이나, 금융 불안이 지속될 경우 악화 가속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부분 보장제는 회사채 시장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은행의 BIS 비율 유지를 위한 대출 기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외환자유화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와 같은 금융 리스크가 큰 상황하에서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예금 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른 현안별 예상 영향 >

	회사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	은행의 대출 기피	은행의 FLC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시가평가제	외환 자유화
예상 영향	기관투자가의 소화력 약화 요인	단기 부동화의 요인으로서, 개선 효과 없음	보험료율의 인상이 있을 경우 비용 압박	금융불안 時 자금 부동화 상승 작용	자금의 해외 유출 유인 제공
강도	◎	○	△	△	◎

주: 강도 ◎=강함, ○=보통, △=약함

금융 구조재편에 주는 시사점

- 대규모 공적 자금의 금년내 투입이 더욱 절실해짐

· 예금보험기금이 적자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금 조성이 요구되고 있어 회원사의 보험료에 의한 운영 체제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예금보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해 금융권의 대량 부실 청산과 금융시스템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함

· 또한, 현재와 같은 금융 불안이 지속될 경우 회사채 대량 만기 도래, 은행 대출 기피 등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어 기업의 연쇄 부도와 금융권의 추가 부실화가 반복될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임

- 내년이후 대규모 금융권 부실 발생시 예금 부분 보장제의 한계 노정 가능성

· 예금 부분 보장제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발생시에 가입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충당된 보험기금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연쇄 도산의 경우, 보험기금으로는 역부족일 것임

· 미국의 경우 예금 부분 보장제를 도입한 상태였으나, 1983년 Continental Illinois Bank(자산규모 8위)의 파산 위기에 직면하여 연방예금보험기구(FDIC)가 사실상의 100% 보험을 제공한 바 있음

· 당시 FDIC는 예금 부분 보장(10만 달러)에 의한 청산(pay-off)[2] 방식 대신에 매수-승계(P&A) 방식 등에 의해 非보험 대상 예금도 보상해주었음

- 금융업계 재편의 가속화

·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촉진되면, 업종별 통합이 활발해질 것이며 나아가 이업종간 규모 경쟁과 금융종합화도 가시화될 전망임

·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켜 국내외 금융기관간 서비스 경쟁도 심화될 것이며, 외화 예금이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 상대적으로 거액 예금자에 대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융자문 서비스의 전담역 배치, 전용 창구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 질적 고도화가 추진될 것임

-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진전에 기여

· 중장기적으로 차등 요율이 도입될 경우 본격적인 업계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예금 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위험 평가 능력을 중시하도록 만들 것임

· 금융기관들이 예금자 중시의 영업 패턴을 도입하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은행의 선별기준이 신뢰성이나 안전성이 보다 중시됨에 따라, 경영 공시의 충실화, IR이나 PR 등을 통한 신용등급, 주가 관리 등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임진국 연구위원 *jkdim@hri.co.kr* ☎ *3669-4026*)

2) pay-off는 부실 금융기관의 파산시 청산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일정한도까지 제한적으로 보장(미국 10만달러, 일본 1천만엔)하는 제도임